

“숫아라 전남의 힘” 전남체육대회 열린다



전남도민의 체육 축제 한마당 전남체육대회가 오는 19일부터 4일간 영암군 일원에서 열린다.

19일부터 4일간 영암시·군 대항전 22개 종목 7,076명 참가 ‘역대 최대’

올해 57회째를 맞은 전라남도체육대회는 ‘숫아라! 전남의 힘, 펼쳐라! 영암의 꿈’을 구호로 정했으며 영암군 일원 24개 경기장에서 육상, 축구 등 21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당구) 등 22개 종목에서 열전 펼쳐진다. 22개 시·군 대항전으로 열리는 이번 체전에는

7,076명이 참가를 신청,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지난해 대회에 6,976명이 참가하는 등 이전까지 6,000명대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뤘다. 전남체육대회 개최 이후 처음 대회를 유치한 영암군은 숙박시설과 주차장, 음식점소 정비 등 참가 선수단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손길맞이에 주력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와 영암군은 도민과 관광객 방문을 통해 보다 많은 관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주중이 아닌 주말대회로 치르고 있다. 개최식은 KBC를 통해 생중계되며 영암군은 이번 체전을 준비하며 영암공설운동장 육상 트랙을 기존 6레인에서 8레인으로 정비했다.

영암군은 대화합체전 구현을 위해 군 기관·단체와 전남도 22개 시·군 대항전을 추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성화봉송,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영암도기체합부스, 프린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감동·화합체전’, ‘문화·관광체전’, ‘소득·경제체전’, ‘성공·참여체전’을 목표로 하는 이번 체전은 도내 최대 스포츠행사로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이 함께 어울리는 체육인의 화합 한마당, 문화와 예술을 가미한 특색 있는 스포츠제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 소속의 국가대표들도 출전해 ‘한수위의 기량’을 선보인다. 정구 김동훈(순천시), 배드민턴 박형중·박현승(화순군), 볼링 최복음·신승현·유지훈·정현수(광양시)가 그 주인공으로 소속 지자체를 대표해 도민한마당에 나선다. 성화는 18일 오후 1시 월출산에서 채화된다. 개회식은 19일 오후 5시 영암공설운동장에서 열리며 세한대 풍물패의 공연을 시작으로 춤바댄스, 아이돌 댄스, 가야금 산조, 유명 가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개회식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성화 점화 행사는 왕인 박사의 위상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19일부터 22일까지 대회기간동안 영암공설운동장 주변에는 드론홍보관, 슈퍼카전시관, 의료체험, 영암도기체합관 등이 마련돼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를 군민과 도민이 함께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마지막까지 성공 개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12일 나주에서 열린 제30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400m계주에서 광주시청 육상팀이 남녀부 동시 금메달을 획득했다. 왼쪽부터 임희남, 김민균, 송만석, 김국영, 한정미, 유지연, 정혜림, 배찬미.

광주시청 400m계주 남녀 동반 우승

전국실업육상 이틀째...김국영 200m 20초99 2관왕

광주시청 육상팀이 남녀 400m계주에서 나란히 우승하며 2018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했다. 김국영(27)은 시즌 첫 실전임에도 불구하고 200m를 20초대에 뛰며 한국신기록 수립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광주시청은 12일 나주에서 열린 제30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400m계주에서 남녀부 동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일반부 400m계주에서는 한국간판 스프린터 김국영을 비롯해 김민균(29), 송만석(35), 임희남(34)이 호흡을 맞춘 결과 41초17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단거리 선수수가 많은 경기도팀인 안양시청(41초44), 안산시청(41초62), 파주시청(42초05)보다 빨라 400m 계주 강자다운 실력을 과시했다.

여자일반부 400m계주에서도 동반 금메달이 배출됐다. 그동안 각종 대회에서 남자 계주만 뛰었던 광주시청은 올해 단거리 선수인 유지연(22)을 영입하면서 여자계주에도 테스트삼아 출전했다. 한정미(22)를 비롯해 허들선수인 정혜림(31)과 세단뛰기 선수인 배찬미(27)가 호흡을 맞췄고, 47초16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며 깜짝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2위 김포시청(47초58), 3위 시흥시청(47초76)과는 기록차이가 컸다. 배찬미는 이날 자신의 주종목인 여자일반부 세단뛰기에서도 부동의 1위를 고수했다. 배찬미는 1차시기에서 12m05를 기록했고 마지막 6차시기에서 12m28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배찬미는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최진화 기자

김국영은 남자일반부 200m에서 20초99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남자일반부 400m허들에 나선 장지용(26)은 52초84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민균은 전남 남자일반부 100m에서 10초38로 은메달을, 한정미는 여자일반부 400m에서 57초95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국영은 테스트 삼아 뛰 400m에서 49초51을 기록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김국영이 200m에서 20초대를 기록해 출발이 팬찮은 것 같다”고 말한 뒤 “올해 유지연을 영입한 김에 배찬미와 정혜림까지 투입해 여자 400m 계주에도 참여해봤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호날두 챔스리그 11경기 연속 득점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포르투갈)와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31·아르헨티나)는 오랜 기간 세계 축구를 양분하며 라이벌 구도를 이어왔다. 그러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만 호날두가 몇몇 국가 우승자는 분위이다. 호날두는 12일(한국시간) 유벤투스(이탈리아)와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15호 골을 작렬하며 챔스리그 ‘한 시즌 최다 골 순위’에서 메시의 이름을 한 계단 더 끌어내렸다. 호날두는 역대 챔피언스리그에서 한 시즌 최다 골 1, 2위 기록도 갖고 있다. 2013-2014시즌 17골이 역대 최다 골 기록으로 남아있고, 2015-2016시즌 16골이 2위에 올라있다. 메시의 이름은 3위(2011-2012시즌 14골)에 올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호날두가 지워버렸다. 호날두는 이날 유벤투스전에서 올 시즌 15번째 골을 터뜨리며 단독 3위 자

리까지 꿰찼다. 메시의 이름은 4위 자리까지 떨어졌다. 이제 호날두의 경쟁자는 메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호날두는 준결승 1, 2차전과 결승전 등 총 3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2골 이상을 넣을 경우 자신이 가진 챔피언스리그 한 시즌 최다 골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되고 3골을 넣으면 새 역사를 쓰게 된다. 달성 가능성은 충분하다. 호날두는 올 시즌 10경기에서 15골을 넣어 한 경기 평균 1.5골을 넣고 있다. 산술적으로 4골 이상을 더 넣을 수 있다. 최근 기세도 무섭다. 이날까지 호날두는 챔스리그에서 11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뽑아냈다. 지난 4일 유벤투스와의 1차전에서 이미 챔스리그 역대 최고 기록인 10경기 연속골을 달성했던 호날두가 자신의 기록을 한 경기 더 늘려간 것이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데이’ 광주YMCA 야구단 지원금 전달

KIA 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는 14일 오후 5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롯데전에서 2018시즌 제1회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데이를 개최한다. KIA와 기아차는 지난해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를 통해 적립한 기금(5억 3,000만원) 중 일부인 7,500만원을 광주YMCA 유소년 야구단 지원금으로 전달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예정이다. KIA와 기아차는 취약계층 야구 유망주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난 2015년 기아-YMCA 유소년 야구단을 창단, 체계적인 훈련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경기 시구는 광주YMCA 유소년 야구단 김상민군이 하고, 시타는 러브투게더 우수 참여 직원인 류재남 기사(광주공장 시설관리팀)가 나선다. 선수단은 특별 제작한 ‘러브투게더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하며, 경기에 앞서 꿈나무 선수들에게 사인 배트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며 앞날을 응원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LPGA 새 등용문 ‘Q시리즈’ 오는 10월 개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입문하기 위한 퀄리파이 토너먼트(Q스쿨)의 최종전을 대체할 새로운 ‘Q시리즈’가 오는 10월 처음 열린다. LPGA 사무국은 첫 Q시리즈가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파인허스트 리조트에서 열린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기존의 Q스쿨 최종전은 5라운드 90홀 경기로 치러졌는데, 새 Q시리즈는

108명의 선수가 8라운드 144홀 경기로 다음 시즌 투어 진출권을 놓고 겨룬다. 1부 LPGA 투어카드도 지난해 상위 20명보다 많은 45명에게 주어진다. 나머지 선수들은 2부 시메트라 투어 진출 자격이 생긴다. 아마추어 자격과 연령 규정 등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 Q스쿨을 통해 LPGA 입성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곧바로 아마추어 지위를 포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듬해

7월 1일까지 아마추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선수들의 경우 봄 시즌 소속팀에서 대회에 출전한 후에 프로 전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난해까지 Q스쿨은 이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부 투어인 시메트라 투어를 노리는 선수의 경우 내년엔 17세가 되는 선수도 1·2차전을 뛸 수 있다. 최종적인 Q시리즈에는 내년엔 18세가 되는 17세 선수들부터 출전할 수 있다. /연합뉴스

박인비 롯데 챔피언십 1R 공동 5위

강혜지·지은희도 상위권...평산산 선두

‘골프 여제’ 박인비(30)가 시즌 첫 메이저대회 ‘1박 2일’ 연장전 패배의 아쉬움을 딛고 시즌 2승에 다시 도전한다. 박인비는 12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카푸레이의 코올리나 골프클럽(파72·6,397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1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버디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순위는 이날 단독 선두에 오른 세계랭킹 1위 평산산(중국·5언더파 67타)에게 두 타 뒤진 공동 5위다.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페르닐라 린드베리(스웨덴)와 이틀에 걸친 8차 연장 끝에 분패해 준우승한 뒤 이 대회에 출전한 박인비는 첫날 선전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1번 홀에서 출발해 전반 버디와 보기

1개를 맞바꾼 박인비는 13번 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1m가량에 떨어뜨려 버디를 낚은 것을 시작으로 3개 홀 연속 버디 행진을 펼치며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강혜지(28)는 4언더파 68타를 기록해 평산산에 한 타 차 공동 2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2009년부터 LPGA 투어에서 뛴 강혜지는 우승 경력이 없고 2014년 10월 레이아웃 클래식 등 세 차례 공동 3위에 오른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다. 올 시즌에는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 스칼프 공동 39위 외에 다른 3개 대회에서 컷 탈락했으나 이 대회에서 시즌 최고 성적을 노린다. 이날 10번 홀에서 출발한 강혜지는 전반 버디 2개와 보기 1개로 한 타를 줄였고, 후반엔 버디만 3개를 뽑아내는 깔끔한 경기를 펼쳤다. 지난달 KIA 클래식에서 LPGA 투

어 통산 4번째 우승을 수확한 지은희(32)는 버디 4개를 잡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 박인비 등과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지현(27)은 공동 15위(1언더파 71타), 유소연(28)과 이일희(30)는 공동 22위(이분과 72타)로 1라운드를 마쳤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준우승한 전인지(24)는 2오버파 74타를 써내 김효주(23), 김세영(25) 등과 공동 49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롯데오픈 여자오픈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한 이정은(22)은 4오버파 76타로 공동 94위에 그쳤다. 시즌 초반 부진을 겪고 있는 박성현(25)은 트리플 보기, 더블보기가 1개씩 나오는 등 난조를 보이며 공동 109위(5오버파 77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12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카푸레이의 코올리나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 롯데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전인지가 벙커샷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